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복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윤 현 정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복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윤 현 정

인 준 서

윤현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닐을 통한 소유 욕망’이라는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 가운데 개인전에 전시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작업의 배경과 내용 및 표현 방법을 분석한 것이다.

예술은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물로, 그 시대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생의 의미와 인간 조건 및 현존의 가치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자 내용이다”라는 아놀드 하우스저(Arnold Houser)의 말처럼 예술에 있어서 인간의 주변 환경과 일상의 체험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과 삶을 공통의 분모로 보고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작품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 안에서 보여 지는 인간의 소유 욕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습관으로 나타난 욕망의 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가 이루어낸 물질적 풍요로움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편화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대 사회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불균형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가치관 혼란, 소외 의식, 불안 심리 등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존재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인하고 보호하려는 습성을 지니게 된다. 본인은 이러한 습성이 모든 현대인에게서 보여 지는 현상은 아니지만, 어느 소수자들에게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소유물에 집착하는 행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본인은 현대 사회의 문제 속에서 다양한 욕구와 심리를 드러내며 사는 현대인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본인 스스로의 모습에서 소유물에 대한 영속을 바라는 욕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를 내포하는 사물과

함께 비닐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 안에서 일상적 사물을 비닐에 싸고 보호하는 것은 현대인이 정신적 소외감과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닐에 싸여진 일상적 사물들은 소중한 의미가 부여된 사물이거나 소중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물들은 극사실적 묘사로 표현된다. 극사실적 묘사는 비닐 소재의 투명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동시에 비닐에 비춰진 사물의 모습을 내용의 가감 없이 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사물을 둘러싼 비닐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막을 두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점은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본문의 1장에서는 현대 사회 속에서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가치 사이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인간 본연의 애착 증세가 지나친 소유 욕망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예술에 반영함으로써 본인의 작품 활동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알아본 현대인의 소유물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매개체로서의 비닐 이미지를 연구하고, 사물의 회화적 재현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적 측면의 바탕이 된 극사실주의에 대해 논하고, 사진을 통한 극사실적 표현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위의 내용과 방법으로 제작된 본인의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재정리하고, 본인 작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작업 활동에 대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이론적 배경	3
1) 현대 사회와 인간의 소유 욕망	3
2) 현실 반영으로써의 예술	5
2. 조형적 전개	6
1) 비닐 이미지와 상징성	6
2) 사물의 재현적 표현	9
3) 사진을 통한 극사실적 표현	11
3. 작품 분석	15
III. 결론	23

참고 문헌

참고 도판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Ugg boots	
53x45.5cm, oil on canvas, 2005	21
[작품2] Family_ banana	
70x40cm, oil on canvas, 2008	22
[작품3] Family_ grape	
70x40cm, oil on canvas, 2008	22
[작품4] Grow into one	
70x70cm, oil on canvas, 2008	23
[작품5] Rose & waterdrop	
145.5x112.1cm, oil on canvas, 2010	24
[작품6] Mums_ 존재유무	
116.8x91cm, oil on canvas, 2008	25
[작품7] Muffin_ 존재유무	
80x30cm (2pea), oil on canvas, 2008	26
[작품8] Present from Yum	
70x70cm, oil on canvas, 2008	27
[작품9] Ivory bear- holding a tomato	
90x90cm, oil on canvas, 2010	28
[작품10] Lilac bear- holding the lily	
90x90cm, oil on canvas, 2010	28
[작품11] Red bear- holding the flower	
90x90cm, oil on canvas, 2010	29
[작품12] Khaki bear- with bow tie	
90x90cm, oil on canvas, 2010	29

[작품13] He is mine	
130x80cm, oil on canvas, 2008	30
[작품14] She is mine	
130x80cm, oil on canvas, 2008	30
[작품15] Spider_ jewelry #1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0	31
[작품16] Sea horse_ jewelry #2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0	32

참 고 도 판

- [도판1] 안성하, 담배, oil on canvas, 88x194cm, 2003 7
- [도판2] Christo Vladimirov Javacheff_ Jeanne Claude,
Little bay, Berlin, wrapped coast, 1971~95 7
- [도판3] 박병춘, 비닐산수, 비닐봉지_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8
- [도판4] Roberto Bernardi, I smili, oil on canvas, 43x47cm, 200410
- [도판5] Daughter & son, oil on canvas, 50x50cm, 2007 본인작품10
- [도판6] Richard Estes, The plaza, 91.5x167.7cm, oil on canvas, 1991.....11
- [도판7] Chuck Close, Big self-portrait,
Acrylic on canvas, 273.1x212.1cm, 1967-6811
- [도판8] Jerry Ott, Laurie/Bronzino,
Acrylic on canvas, 205.7x243.8cm, 197411

I. 서 론

현대 사회는 문명과 기술의 발전으로 급성장을 거듭하여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예술·문화 활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에 대한 투자와 권리 보장이 더욱 향상 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시간보다는 개인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간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정신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는 사물, 서비스, 그리고 물질 재화(物的 財貨)의 증가로 이룩된 소비와 풍요라는 매우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인류의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풍요롭게 된 인간들은 지금까지의 어느 시대에도 그러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¹⁾ 이렇듯 집단의 삶보다는 개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가치로 삶의 질을 판단하고 형성하려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다. 풍요롭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되는 소비로 인해 지나친 욕심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소유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서로 서로의 부재(不在)의 반복으로 소외된 마음을 개인의 소유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에 집착하고 유지하려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애착을 보이는데, 이것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인애착²⁾으로 보여 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듯 본인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애착 증세를 통한 경험을 거울삼아 인간의 소유 욕망을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할

1) Jean Baudrillard, 이상물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p12

2) 성인애착;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을 말한다.

것인지를 작업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작업은 비닐에 싸인 사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비닐 안에 의미 부여된 사물을 저장함으로써 그 사물에 애착을 갖고, 소유함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인 작품의 조형적 전개에서 보여 지는 양식은 극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작품의 내용을 반영하는 매개체인 비닐 소재의 투명한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극사실주의의 화가들이 의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각적 효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극사실적 표현으로 전개되는 2007년의 작품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작된 연작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모습과 인간의 애착 성향에서 보여 지는 소유 욕망을 고찰해보고, 작품을 창조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비닐에 싸여진 사물의 이미지로 인간의 소유 욕망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전개를 정리하고, 작품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작업의 개선방안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현대 사회와 인간의 소유 욕망

오늘 날 세계는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굳이 구체적인 현상들을 나열하지 않아도 이러한 변화 추세들은 충분히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변화가 짧은 시간에 급속하고도 복합적으로 전개된 경우, 혼돈과 방황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와 대량 생산으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고 있다. 산업사회 초기에 노동이 사회적인 것으로 되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소비가 사회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소비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넘쳐나는 물질의 유혹으로 끊임없는 소비를 통해 사회 속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일상적인 교류는 더 이상 그들의 동료들과의 교류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서 그들이 현존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대화로 살고 있다기보다는 순종적이고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사물들의 무언(無言)의 시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물에 대한 의식이다. 사람들은 친숙한 것에 집착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행동 경제학자는 이를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이라고 부르며 설명해왔다.³⁾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며 현상유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나의 것은 특별한 것이고, 다른 것과는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이라도 자신이 소유한 것

3) Gary Belsky, Tomas Gilovich, 노지연 역, 『돈의 심리학』, 한스미디어; 2006, p111

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유행이 바뀌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넘쳐나는 행태 속에서도 사람은 그들 고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체에 대해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결국 사물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소유욕망은 현상유지 편향 외에도 유아기 때 형성되는 애착 증세와도 연관이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는 어미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된다. 어미의 젖을 먹을 때, 먹이보다도 먹이를 주는 어미와의 따뜻한 접촉을 통해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동기 때 형성된 애착에 뿌리를 두고 발달하게 된다.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애정결핍 증세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애착 증세 역시 인간의 환경적 조건과 맞물려 그것이 강해지거나 미미해지는 차이를 보여 준다. 그것의 정도는 곧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애착 성향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의존적 소유 욕망이 합쳐지면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쟁취한다. 이처럼 인간 고유의 애착 성향과 사회 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소유 욕망이 보여 주는 행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삶 속에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다.

2) 현실 반영으로써의 예술

예술이란 삶의 경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삶의 경험 그 자체일 수도 없다. 카시러(Ernst Cassirer)⁴⁾는 예술이란 실생활 속의 대상이나 사건 및 정서적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상상력을 통해 직관하고, 형식화 능력을 통해 감각적인 예술형식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이 우리 앞에 하나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할 때, 그 형식은 각 예술가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 점으로 인해 예술형식은 삶의 내용을 함축한 의미체로 기능하게 된다.⁵⁾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은 이러한 미적 반영의 특성으로 인간 중심적 성질 및 현세성 말고도 현실의 겉보기에 모순되는 듯한 요소들을 통일시키는 능력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현상과 본질, 객관과 주관, 개별적인 사태와 법칙, 직접적인 체험과 개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형식과 내용, 정제적인 것과 동태적인 것 등의 모순이 융해되어 있는 현실의 모습을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서 이것들이 즉시 분리 가능한 통일체로 형성되도록 변형시키는 것이다.

현실을 떠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술 또한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예술의 현실 반영은 인간 개성의 표상이라는 형식으로 인간의 주체적 존재와 객관적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관계한다. 반면 과학은 과학자들 나름의 입장에 의해 연구한 뒤에 의식적으로 결과에서 주관적 요소를 제거해 버리려 한다. 루카치는 과학과 예술은 동일한 객관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과학이 인류의 인식(mankind's awareness)인 반면, 예술은 인류의 자기 인식(mankind's self-awareness)이라고 하였다.⁶⁾ 예술은 어떤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예술가의 영혼을 담아 나와 세계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현장을

4) Ernst Cassirer(1874-1945) ; 독일의 철학자. 신칸트학파인 마르부르크학파에 속한다. 칸트의 비판적 관념론을 단순히 합리적 지식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더욱 넓게 인간의 정신적인 모든 경험(문화적 생산)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문화적 비판'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5)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p134

6) Bela Kiralyfalvi, 김태경 역, 『루카치 미학비평』, 한밭출판사; 1984, p46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술가의 주관적 시선은 모든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 내고, 가시적인 세계에다 스스로의 영혼에서 만들어낸 형상, 즉 아직 존재한 적이 없는 하나의 리얼리티를 수립하게 된다.⁷⁾ 개인의 삶에서 비롯되어진 경험과 견해들은 작품의 본질적 동기를 부여하고, 작품 형성의 배경이 된다. 작가는 현실세계와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주변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식을 작품에 표출한다.

본인은 이렇듯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예술가의 위치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 현대인의 사물에 대한 집착과 자기 소유물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위안을 얻는 모습을 통해 본인은 누구보다도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현대 사회에 존속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경험에서 축적된 의식이 예술이라는 창조물을 통해 표출되는 현상처럼 본인의 습관에서 보여 지는 모습을 작품에 그대로 표출시켰다. ‘내 것’과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인간의 한 단면을 ‘비닐’이라는 투명한 막을 통해 이미지로 그려봄으로써, 본인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조형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2. 조형적 전개

1) 비닐의 이미지와 상징성

본인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비닐 이미지이다. 현존하는 사물을 자신만의 소유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7) Rene Huy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87, p27

으로써, 그리고 외부의 침범을 거부하는 심리를 반영한 매개체로써 비닐을 선택하였다. 수많은 소재 중에 비닐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일상에서 하는 역할인 즉, 사물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차단을 하는 기능이 마치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보호막과 비슷한 역할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비닐에 보관되어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는 사물들처럼 사람들은 각자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여 자기보호나 자기방어를 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자기보호나 자기방어는 인간의 소유욕과도 연결 된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습성은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비닐(vinyl)은 화학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는 흔히 물건을 담거나 싸는 용도로 비닐봉지를 만들어 사용한다. 단순히 운반용으로 만들어 쓰이는 비닐도 있지만 음식이나 사물을 보관하고 보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본인이 작품 속에 등장시킨 비닐의 용도는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일종의 반찬 등의 음식 통을 싸는 랩(wrap)⁸⁾과 같은 용도라고 할 수 있지만 작품 속 비닐은 랩과는 다른 성질과 모양의 얇은 막으로 표현된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쓰는 랩과 같이 작품 속 비닐은 그것 안에 담겨있는 과일이나 꽃, 인형 등의 사물을 보호해준다. 그것들은 외부와의 차단으로, 비닐 내부 공간에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의 보호를 받고, 주체의 소유물로써 의미를 부여 받는다. 여기서 과일이나 꽃은 썩어 없어지는 사물이다. 그것들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고 부패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현실에서의 당연한 현상을 본인의 작품 속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소유물'로써 영원히 소유될 수 있고 보호 받도록 또 한 번의 생명력을 부여한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죽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사(生死)와 반대로 공기가 통하지 않더라도 비닐 내부 공간에서는 시간이 멈

8) wrap(랩); 식품 포장에 쓰는 폴리에틸렌제의 얇은 막을 일컫음.

춘 듯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다.

작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살아온 배경을 통해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신세계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캔버스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 예술로 표출시킨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성인애착 증세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이지만 그것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본인은 애착의 정도가 강한 편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영속의 바람이 강하다. 이것은 아동기 때에 어떠한 유대관계 속에서 형성되지 못한 애착이 성인애착으로 이어지면서 강하게 표출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아끼는 사물을 비닐로 포장하여 보관하는 일상적 습관을 통해 포착되었다. 그것은 곧 본인의 환경적 조건에 의한 성격을 말해주는 행태이기도 하다.

작가의 습관에서 비롯된 소재의 선택은 캔버스에 그려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르고 표현하는 바도 다르다. 본인의 작품 속 비닐은 단순한 막을 넘어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습성과 사물에 대한 소유 욕망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소재 선택에 있어 그 의미하는 바는 작가의 시각으로 표현하고픈 내적 심리를 보여 준다.

안성하는 투명한 유리 용기(用器)를 통해 현대 사회를 표현하였다(도판1). 그는 유리가 가지고 있는 투명함과 그것이 대상을 왜곡시켜 사물을 불분명한 실체로 보이게끔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양면적인 모습을 투영하려 했다. 모든 예술 작품은 작품마다 그 의미와 소재는 다르지만, 이야기하려는 것에 대해 일상적 사물을 매개로 표현된다. 크리스토 (Christo Vladimirov Javacheff; 1935~) 는 대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비닐 천막을 이용하여 거대한 작업을 진행하였다(도판2). 크리스토와 그의 아내 잔느 클로드 (Jeanne Claude; 1935~2009)와 함께 병, 의자 등의 오브제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다가 1961년부터 공공장소와 건물로 작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대지미술가이면서 환경운동가인 이들은 색이 있는 불투명한 비닐 천막을 사용하여 대대적인 예술작품을 완성시켰다. 본인의 작업 속 비닐은 이러한 소재 선택에 있어

공통되지만, 전혀 다른 투명한 비닐을 이용하여 그것에 싸여진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크리스토프와는 의미나 표현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붙여 석탄탄광 산맥을 설치작품으로 표현한 박병춘(1966~) 역시 비닐을 소재로 작품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본인의 작품 속 비닐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도판 3).

본인은 인간의 현상유지 심리와 소유 욕망을 드러내는 막을 표현하기 위해 비닐을 선택하였다.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명한 막으로 사물을 감싸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을 내적으로나마 염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술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물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영화나 동화처럼 이야기를 만들고 극을 꾸미며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기록하고, 그것을 감상하는 우리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림을 보면서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본인이 의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현실과 다른, 작품 속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작가는 작품 안에서 현실과 다른 무언가를 규정하고 그것을 현실 가능한 일로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꿈을 꿀 수 있고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위대한 삶의 표현인 것이다.

2) 사물의 재현적 표현

현대 미술을 비롯한 시대 미술에서 ‘재현’이라는 단어는 회화적 기술로부터 비롯되어 미술 자체의 존재 이유를 찾게 한다. 이런 이유에서 현대 미술은 재현적 회화로부터 가장 멀리 떠났다가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재현적 회화로 회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재현(representation)은 이러한 사물의 참다운 모

습을 그 시대의 감수성과 함께 내포되어 미술 작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현은 사전적으로 ‘다시 나타냄’을 뜻한다. 이는 회화에서 대상을 다시 나타냄, 즉 다시 표현함을 일컫는다. 재현의 유래는 과거 모방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인 모방론(mimesis)에서 모방의 개념은 모방되는 존재와 모방의 결과라는 이분법적 형식을 지니는 것으로, 모방물은 그 본래 존재했던 것을 흉내 낸 것이라는 유사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림과 재현 대상 사이에는 원본과 복사본 사이에 닮음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때 시각적 닮음에 의해 회화적 환영이 발생한다. 재현의 결과물로 형성된 환영은 예술가와 보는 이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재현은 단순히 모방하거나 재생산 하는 것이 아니다. 재현은 현실과 실재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평면 위에 이미지로써 화면을 형성한다.

실재를 재현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표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실재의 재현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통해 존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화가 스스로 그 존재성을 지각 할 수 있어야만 그 의미를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재현 한다는 것은 현실과 감성의 존재로써 정직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면 눈에 보이는 사실로부터 마음속에 존재하는 실재까지 그 의미를 확장 시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현’은 곧 ‘소통’을 의미한다. 재현을 통한 소통의 예로 화가들이 냉철한 시각에서 객관적 서술법으로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각자가 재현을 한다고 했을 때, 화가마다의 색채, 기법, 선의 표현의 차이로 인해 다른 그림을 그렸다 해도 재현이라는 표현 양식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같은 대상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현을 통한 소통은 곧 작품을 통해 ‘만드는 이’와 ‘보는 이’가 어떻게 소통하며 서로의 심리적인 환경과 함께 필연적으로 연류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재현은 인식의 문제를 항상 수반한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형태의 결과를 보고 세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재의 의미를 확

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재현적 회화는 실재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접근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재현이라는 표현적 방법은 내용의 충실함을 갖추며 미적 안목 및 미의식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본인의 작품에서 사물을 정물로써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한 정물화에 서 보여 지는 일반적 사물의 모습이 아닌, 비닐이라는 매개체에 싸인 사물의 이미지를 재현했다. 로베르토(Roberto Bernardi)의 작품에서 나타난 과일의 이미지는 과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내용의 가감(加減)없이 화면에 재현 되었다(도판4). 본인이 나타내는 사물의 이미지는 내용의 가감 없이 그려진 듯 보이나, 그것은 시각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사물 그 자체로 보이기 위한 방법일 뿐 내용적으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닐에 싸인 복숭아와 고추가 그려진 작품(도판5)을 보면, 관람자는 복숭아와 고추를 시각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들이 내포하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예로부터 흔히들 복숭아를 얻는 꿈을 꾸면 딸을 갖는 태몽으로 여겼고, 아들이 태어난 집의 대문에는 빨간 고추를 줄에 엮어 매달아 놓았다. 이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딸과 아들을 상징하는 사물로써 복숭아와 고추를 선택하여 재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본인은 사물의 재현을 통해 사물을 외적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1차 목표를 성립하고, 2차적으로 그 사물이 가진 내적 의미를 연상시킴으로써 두 가지 목적을 한 화면에 담아낸다. 이처럼 시각적 효과와 내용적 효과가 합쳐졌을 때 그 의미의 깊이는 두 배가 된다.

3) 사진을 통한 사실적 표현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마치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주관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사물을 묘사하려는 일군의 시도를 극사실주의 또는 초사

실주의, 사진적 사실주의라 한다. 현실에 항상 펼쳐지는 일상을 일체의 가감이나 생략 없이 보여줌으로써 대상이 지극히 생생하고 완벽하게 묘사되는 한편 자칫 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사소하고 미세한 결점도 숨김없이 드러낸다.⁹⁾

이 미술형식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유럽으로 파급되었다.

극사실주의 작가들은 작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 카메라와 사진을 이용한다. 과거 리얼리즘 작가들은 사진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대부분 실물이나 스케치, 습작, 상상을 통하여 작업했다. 이들은 사진의 사용을 배제하였는데, 실제로 사진의 사용을 지지하는 작가들과 사진의 사용을 완전히 미술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극사실주의 회화에서 사진은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리처드 에스테스가 건물 앞에 앉아서 자기가 본 것을 단지 그리려고 한다면, 그의 작품(도판6)은 다른 아카데미 풍의 리얼리즘 작품과 비슷해 보일 것이며 정확성, 직접 드러나는 세부 묘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모든 세부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이에 날씨가 변하듯이 거리의 모습은 변할 것이다. 극사실주의에 입각한 작가들은 변화와 운동은 1초라는 시간 속에 고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전부 세밀하게 재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은 사진뿐인 것이다.

척 클로스(Charles Thomas Close; 1940~)(도판7)와 제리 오토(Jerry Ott; 1947~)(도판8)가 사용한 방법은 격자(grid) 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극사실주의보다 훨씬 이전부터 쓰여 졌는데, 이 격자는 스케치된 이미지를 회화로 옮기거나 한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옮기거나 확대할 때 대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떤 기초 스케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주관적인 방법은 감광성이 있는 캔버스나 종이에 상을 인화하는 것이다. 모든 극사실주의의 작가들은 사진을 모방하는 회화 쪽으로 기법을 채용하지만 그 누구도 예술을 산출하는데 기술이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¹⁰⁾ 작가는 완성된 작품을 사진처럼 보이게 만들

9) 유혜경, 『예술의 개요-바로크 이후』, 학연사; 2004, p186

10) 루이스 K. 마이클, 이영준 역, 『포토 리얼리즘』, 열화당;1990, p21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 역시 이들과 같은 맥락에서 극사실주의에 입각한 사실적 묘사를 목표로 작품을 제작한다. 그러기 위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 사진이라는 매개물을 사용한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참고하여 그리는 방법이 본인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제작과정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카메라는 순수하게 기계적인 작용으로 편견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사람들은 믿어왔다. 그런데 카메라의 시각은 원근법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사진 이미지와 인간의 정상적인 시·지각을 비교해 보면 사진은 제한된 시야 심도를 통해서 선명성을 유지하며 그 정도는 렌즈와 조리개 초점에 비례한다. 반면에 인간의 시각은 전체를 통해 초점의 선명도를 유지한다. 사진에서는 시각이 렌즈 각도에 따라 변하지만 인간의 시각은 각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 사진 이미지는 깊이가 없으며 다만 깊이의 외양만을 운반한다. 반면에 인간의 시·지각은 깊이가 결여되는 법이 없다. 사진의 시각이 포착되는 것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이의 표면들과 가장자리,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미지이지만, 인간의 시·지각이 포착하는 것은 친숙한 대상들과 의미들 및 기호들의 세계이다.¹¹⁾ 이렇게 카메라의 시각은 그것이 실현하는 원근법의 차원에서도 인간의 시각과는 다른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통용되던 원근법적 시각 자체까지 의문스럽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인간의 시각과 다른 이 카메라의 시각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의 시각 경험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시각이기도 하였다. 벤야민은 이것을 ‘시각적 무의식’의 발견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사진이나 영화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¹²⁾

11) 주은우, 『시각과 현대성』, 서울: 한나래, 2003, p 436

12) 같은 책, p 440

카메라에 비치는 자연은 눈에 비치는 자연과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카메라에는 인간에 의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대신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예컨대,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대강 어떻다고 흔히 말을 하지만 ‘걸어서 나아가는’ 순간순간의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고속도 촬영기나 확대기와 같은 보조 수단을 통하여 이러한 것을 밝혀낼 수 있다. 마치 정신 분석학을 통하여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진술을 통하여 이와 같은 시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세계를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나 의학이 밝혀내려고 하는 세포의 구조나 조직과 같은 것들은 모두 아름다운 풍경화나 아니면 영혼이 담겨 있는 초상화보다는 근본적으로 카메라에 더 가까운 것이다.¹³⁾

이와 같이 카메라의 렌즈는 인간의 시·지각과 달리 평면의 깊이를 잡아낼 수는 없지만 사진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인간이 미처 볼 수 없는 부분을 정지시켜 포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사실적 표현을 위해 정물을 바라보고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을 멈추고 빛의 각도나 한 치의 자리이동 없이 옮겨 그릴 수 있다면 사진을 통한 이미지는 굳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단 1초라도 시간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본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정확한 사물 이미지를 통하여, 카메라가 포착하기 힘든 평면의 깊이를 본인의 시 지각을 통해 사실적 표현을 하기로 한다. 특히 썩어 없어지는 사물, 즉 과일이나 꽃을 보고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을 할 때에 사진 이미지는 빛을 받는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닐은 썩어 없어지는 사물은 아니지만 그 소재의 특성 상 빛이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시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진 이미지를 통한 사실적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에서도 카메라와 화가와 의 관계는 뿔 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화가의 눈을 통하여 화가의 손으로 붓이 움직이며 완성되는 하나의 작품의 밑바탕에는 그것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카메라가 있었다. 사진의 등장은 인간 세상에 여러 방면으로 의미 있는 발전임과 동시에 예술 세계에 있어

13) Benjamin, Walter,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서울: 민음사, 1983, p 237

가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본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사실적 묘사를 통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사진이라는 매개물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노동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본인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화면을 설정하고 조작함으로써 단순히 사물을 포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배경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려진 작품은 사실적 묘사를 통해 보는 이가 단번에 대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의 기쁨과 안도감을 준다. 현대 미술의 다양한 미술 형식들 속에서 사실적 재현은 그 자체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생산자 역할의 작가가 의미를 전달하기에도 명료하고, 관람자 역시 작가의 의도를 알기 이전에 작품 자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스스로의 취향과 더불어 작품을 표현하는데 있어 알맞은 표현 방법으로 사진을 통해 극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3. 작품 분석

[작품1] Ugg boots

비닐에 싸여진 사물을 그린 최초의 작품으로, 개인적인 습관에서 발견된 현상 유지 욕구가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작품에 쓰일 자료를 모으던 중 우연히 카메라에 담게 된 이 모습을 캔버스에 재현함으로써 본인이 화가로 입문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하다. 2005년도 작품으로 현재 까지 스무 작품이 넘는 비닐 시리즈 작업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극사실적 묘사에 조금 못 미치는 표현력을 보여 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한 묘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비닐 소재의 느낌과 비닐에 비취 보이는 사물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 물감과 붓의 느낌을 살려 빠른 시간 내에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비닐 안에 의미 부여된 사물을 배치하는 식의 비닐 시리즈에 동기 부여가 된 셈이다.

[작품2] Family_ banana

[작품3] Family_ grape

[작품1]에서 표현된 부츠는 ‘자기 소유’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지만 사물로써의 역할은 변함없이 단순히 부츠를 재현해 낸 것에 불과했다. 반면 [작품2]와 [작품3]에서 보여 지는 과일들은 단순히 과일을 재현해 낸 것만은 아니다. [작품2]의 바나나 한 송이와 [작품3]의 포도 한 송이는 모두 ‘가족’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 줄기에 묶여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개체로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과 흡사하다. 현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인간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가족의 의미와 해체로 겪는 고통, 그들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직접, 간접적 경험을 통해 우리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간다. 언제나 행복하고 따뜻할 것 같은 가족의 모습들이 어떠한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비닐이라는 보호막을 싸 줌으로써 가족의 안전과 현상 유지로 위안을 얻는 우리의 심리를 대변한다. 이미지의 외적 형태로는 단순히 비닐에 싸인 과일들을 재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 의미로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바람이 담겨있는 것이다.

[작품4] Grow into one

위에서 바나나와 포도를 가족의 모습으로 의인화 한 것과 같이 이 작품에서는 장미와 나비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비닐 안에 있는 장미 두 송이는 ‘나’와 ‘나의 연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나’는 작품을 감상하는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된다. 그리고 비닐 안에 속하지 못하고 외부에 표현된 나비는 우리를 또는 그

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 입히는 대상을 가리킨다.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 또한 너무나 많다. 그런 상처들로부터 보호하는 막으로써 비닐은 본인의 의도를 표현해주고 있다.

본인의 작품 속에 의인화 된 사물들은 작품을 보는 이들의 관점에서 그 대상이 달라진다. 어떠한 한 사람을 모델로 그려놓은 초상화나 나 자신을 그려놓은 자화상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 작품을 접하는 누구나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작품1]에서부터 이 작품까지 재현된 사물에 비해 여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본인은 의도적으로 바탕을 단색으로 처리하고 비닐에 싸인 사물을 화면의 중심에 배치했다. 그 이유는, 사물로 시선을 집중 시키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배경이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작품5] Rose & waterdrop

본인은 2007년부터 2009년 중반 까지 이미지 크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물의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그려왔다. 그것은 작품 안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남겨두고 실존 크기의 사물을 극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을 때 좀 더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 후반 작업부터는 이미지의 확대를 통해 배경에 대한 여백 보다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풀어나가고자 하였다. 확대는 형상을 본래의 것, 또는 기준이 되는 것의 크기보다 더 크게 하는 것으로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재창조 방식으로 사용된다. 확대를 통해 재현된 대상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징적 의미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 이전에 여백을 많이 남겨두고 사물을 실제 크기와 비슷하게 그렸던 작품들과 같이 대상의 강조를 위한 의도는 같은 맥락에서 상통된다.

[작품6] Mums_ 존재유무

이 작품은 그 동안의 작품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구도 안에 사물을 배치한 작품이다. 하단에 테이블 선을 그려 넣어 마치 창틀에 놓인 화분의 모습들을 전개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표현 기법 측면에서도 다른 점을 보인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비닐을 강조하고자, 비닐에 싸인 화분만을 사실적 묘사로 표현하였다. 그 외에 비닐에 싸지 않은 화분과 꽃조차 심지 않은 빈 화분은 단면적으로 표현되었고 표면에 사포질을 하여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형상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비닐, 즉 화분 안에 꽃을 보호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막으로써의 역할이 없는 화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사실적 묘사 작품들에서 디자인적인 느낌을 탈피해 좀 더 회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시도한 작품이다.

[작품7] Muffin_ 존재유무

이 작품은 두 개의 캔버스에 머핀의 유(有)와 (無)를 표현한 것이다. 비닐 안에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머핀과 비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먹다 남긴 머핀을 두 캔버스에 나눠서 표현한 것이다. 사실적 묘사로 실물의 크기와 비슷하게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사물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지 않고, 가로가 긴 캔버스 화면 상 양 쪽으로 분할되도록 가장 자리에 사물을 배치해 표현하였다. 두 이미지를 한 화면에 그렸을 때보다 화면이 두 개로 나뉘으로써, 전시 공간에 따라 자유롭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 각각 다른 느낌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다.

[작품8] Present from Yum

이 작품은 곰 인형을 재현한 작품이다. 현대인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이 반영된 작품이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파란 색 곰 인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친구가 직접 제작한 인형을 본인에게 선물한 것인데, 여기서 이 곰 인형에 대해 의미부여와 가치 부합이 이중으로 형성된다. 친구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점에서 고마움의 의미가 부여되고, 손수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친구의 정성이 높은 가치로 부합된 사물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정성과 사랑으로 그것을 보살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습성이 때로는 집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비닐에 싸인 사물을 통해 재현하려 한 것이다. 이 작품은 내용적 측면에서 본인의 심리를 그대로 표출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외적 측면에서 관람자들의 반응이 남달랐던 작품이다. 그 이유는 사물의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곰 인형이기 때문이었다. 곰 인형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하나쯤 소장하였었고, 지금도 집 안 어딘가에 있을법한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친숙한 존재이다.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인 반면 인형의 색감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한 파란 색의 곰인 것에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작품9] Ivory bear- holding a tomato

[작품10] Lilac bear- holding the lily

[작품11] Red bear- holding the flower

[작품12] Khaki bear- with bow tie

위에서 분석한 [작품8]을 제작한 뒤, 곰 인형에 대한 관람자의 시선이 매우 긍정적이고 작품에 대한 소유 욕구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오늘 날과 같이 미술 시장이 활발하게 회전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예술가들은

관람자의 욕구가 작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을 상품화하여 생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가는 물질을 욕망하고 돈을 갈구하며 소비가 즐비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작품의 상품화는 배제할 수 없는 큰 부분이다. 작가는 화면 위에 구성할 사물에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 경험과 취향을 참고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한 소재가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고 작품을 통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소재 선택임이 드러난다. 극사실주의의 작가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옮김으로써 관람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가가기 힘든 문제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방법적 측면에서 관람자와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것과 같이, 내용적 측면에서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은 [작품9]에서 [작품12]까지, 각각의 꿈 인형이 사물을 안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뒤 네 개의 작품을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여기서 토마토를 안고 있는 [작품9]를 보면 의인화된 사물과 부패되어 없어지는 채소가 함께 비닐에 싸여 있다. 의인화된 꿈 인형은 ‘나’이다. 그리고 ‘나’로 의인화된 인형이 안고 있는 토마토는 ‘나의 소유물’이다.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런 사회의 양상에서 본인이 유지하고픈 것은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소중한 어떤 것들’이다. 그것들이 비닐이라는 얇지만 투명하고 견고한 막의 보호를 받아 작품 속 세계에서는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재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작품10]과 [작품11]은 꽃으로 소유물을 대신 표현하였고 [작품12]는 꿈 인형에 안경과 나비 타이틀 메 줌으로써 의인화된 사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였다.

[작품13] He is mine

[작품14] She is mine

이 두 작품은 각각 남자와 여자를 의인화한 것들이다. [작품13]은 남자를, [작품14]는 여자를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과일로서 사람을 이미지화 한다. 복숭아는 여자의 붉은 볼, 또는 좀 더 선정적으로 보자면 여자의 엉덩이나 가슴의 모양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바나나는 남자의 성기 모양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본인은 작품 속 과일에 가족이나 연인, 가깝게는 나 자신을 의인화하기도 한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사물과는 다르게 과일은 자연이 주는 산물로써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진다. 이러한 형상을 보면서, 마치 인간이 삶 속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이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생산자 자신이다. 본인은 생산자로서 이 작품에서복숭아를 본인으로 지칭하고, 바나나를 사랑하는 연인을 지칭하며 작품화 하였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시간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임을 알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더 오래 살기 위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인간의 영원히 살고 싶은 존재 욕구를 드러낸다.

본인은 이러한 욕구를 작품 속에 반영하여, 누구나가 될 수 있는 복숭아(여자)와 바나나(남자)를 비닐이라는 영원성을 부여해주는 막을 싸 주었다. 이것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나 현상 유지 편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품15] Spider_ jewelry #1

[작품16] Sea horse_ jewelry #2

이 두 작품은 브로치를 상징화 하여 그린 것들이다. 보석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물이다. 부의 상징이며 아름다움의 상징인 보석은 반짝이는 화려함과 빛에 따라 변하는 오묘한 색채를 내뿜으며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이러한 상징물을 가지고 인간의 부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비닐에 담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본인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도는 아름다움의 표출이다. 인간은 누구나 미(美)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것이 자신의 외모가 되었건 집이건 간에 자신에게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 추함을 드러내고픈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본인 역시 미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술은 인간의 미적 질의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에 본인이 의도한 것은 시각적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을 소유함으로써 만족과 안락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브로치를 옷에만 달으라는 법은 없다. 캔버스 위에 브로치를 매달고, 그것을 비닐에 한 번 더 포장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 그 보석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것이 내뿜는 빛과 오묘한 색채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보석 또한 누구나가 의인화 되어 보여 지는 하나의 생명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현대 사회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지나친 소비와 그치지 않는 욕망으로 사물에 대한 의식 안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어느새 부턴가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기 위해 수긍하고 감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본인은 소유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현상 유지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한 심리 상태를 작품에 표출함으로써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물을 싸고 있는 비닐이다. 비닐은 사물에 대한 현상유지와 지나친 집착을 대변해주는 매개물로써 그 특유의 투명함과 견고한 성질은 현실의 우리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막과 같다. 그리고 비닐에 싸여있는 사물들은 각자가 만들어낸 막에 싸여 보호받는 자신이거나 내가 소중한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소중한 사물들인 것이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조형적 방법을 재정비하고 연구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예술 활동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이론들을 수용하고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본인이 앞으로 만들어 나아갈 작품들에 어떠한 것들을 가감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비닐을 주제로 한 작업들이 2010년까지 이어오면서, 방법적 측면이나 시각적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작업을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엿보였다. 맹목적으로 찍어내듯 작품을 만드는 것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작가가 그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술을 즐기

면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예술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의지와 결심이 확고해진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소유 욕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구성과 방법을 연구하여 더 나은 작업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작품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이론적 개념과 조형적 방법 및 문제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본인은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신 신진 작가로서, 앞으로 좀 더 깊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작품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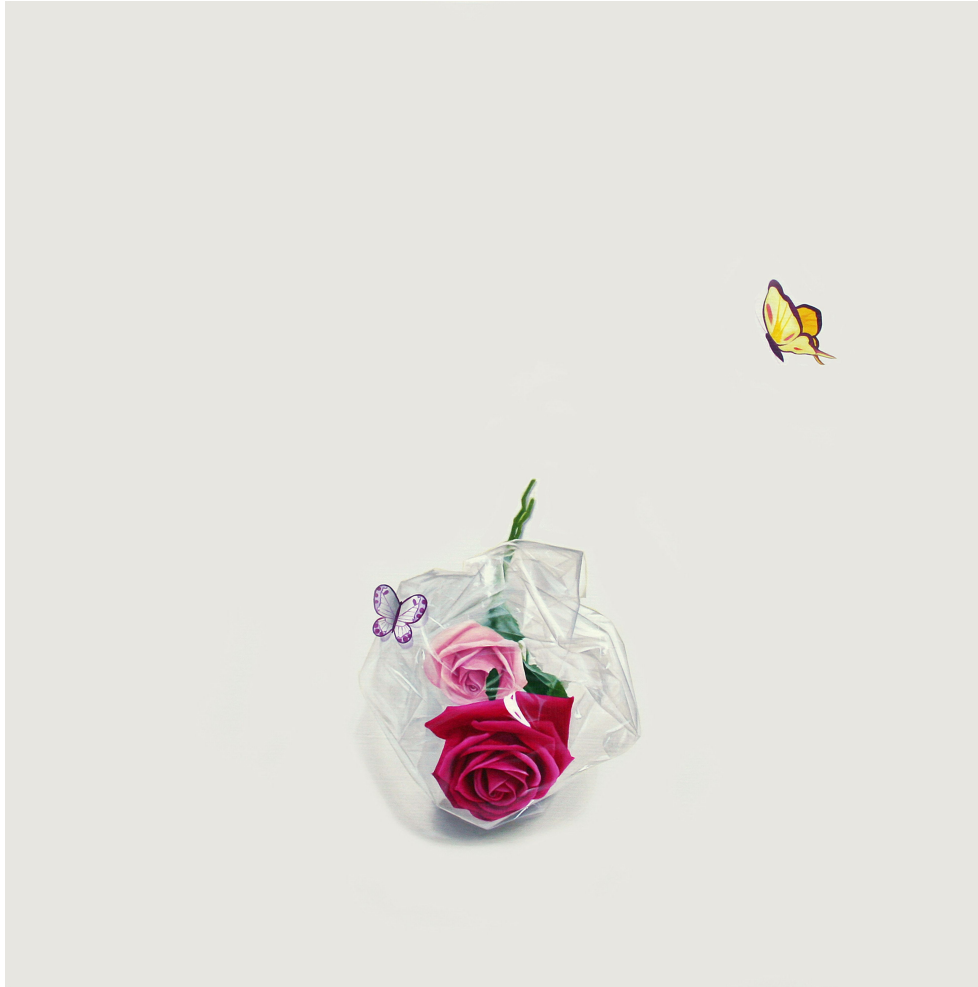
[작품1] Ugh boots, 50x45.5cm, oil on canvas, 2005



[작품2] Family_ banana, 70x40cm, oil on canvas, 2008



[작품3] Family_ grape, 70x40cm, oil on canva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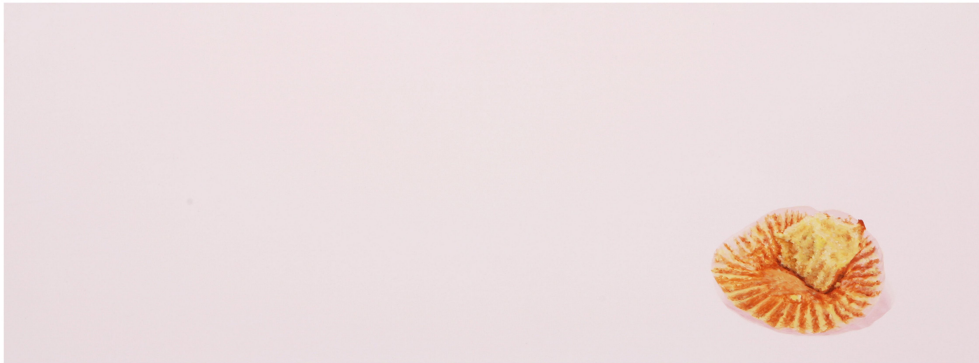
[작품4] Grow into one, 70x70cm, oil on canvas, 2008



[작품5] Rose & waterdrop, 145.5x112.1cm, oil on canvas, 2010



[작품6] Mums_ 존재유무, 116.8x91cm, oil on canvas, 2008



[작품7] Muffin_ 존재유무, 80x30cm each, oil on canvas, 2008



[작품8] Present from Yum, 70x70cm, oil on canvas, 2008



[작품9] Ivory bear- holding a tomato, 90x90cm, oil on canvas, 2010



[작품10] Lilac bear- holding the lily, 90x90cm, oil on canvas, 2010



[작품11] Red bear- holding the flower, 90x90cm, oil on canvas, 2010



[작품12] Khaki bear-with bow tie, 90x90cm, oil on canvas, 2010



[작품13] He is mine, 130x80cm, oil on canvas, 2008



[작품14] She is mine, 130x80cm, oil on canvas,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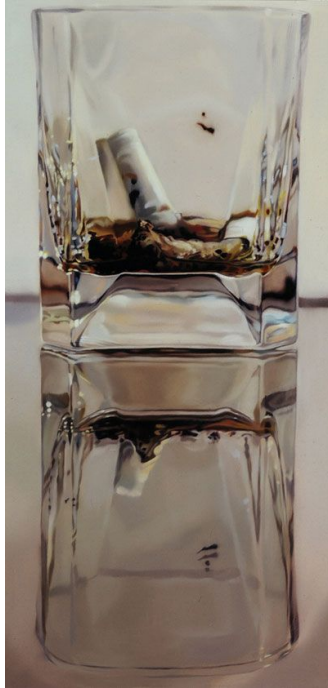


[작품15] Spider_ jewelry #1,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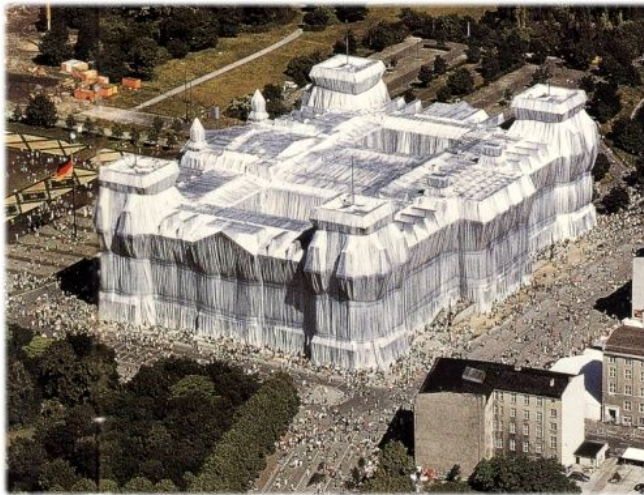


[작품16] Sea horse_ jewelry #2, 162.2x130.3cm, oil on canvas, 2010

참 고 도 판



[도판1] 안성하, 담배, 88x194cm, oil on canvas, 2003



[도판2] 크리스토, 잔느클로드, little bay, Berlin, wrapped coast, 1971~95



[도판3] 박병춘, 비닐산수, 비닐봉지_혼합재료, 가변설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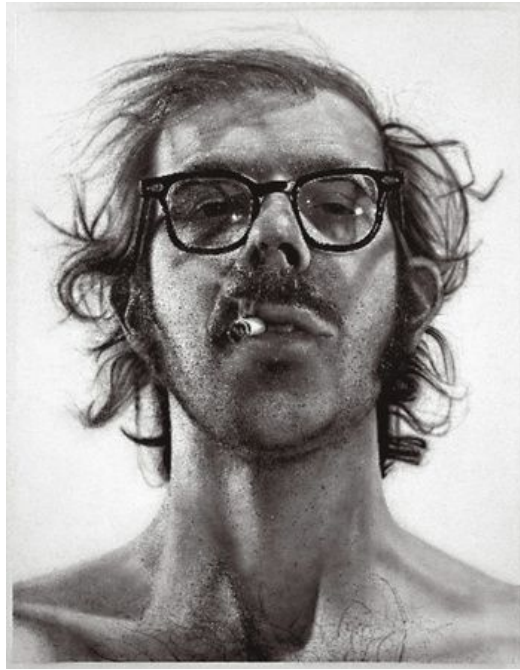
[도판4] Roberto Vernardi, I smili, 43x47cm, oil on canvas, 2004



[도판5] Daughter & son, 50x50cm, oil on canvas, 2007 (본인작품)



[도판6] Richard Estes, The plaza, 91.5x167.7cm, oil on canvas, 1991



[도판7] Chuck Close, Big-self portrait, 273x212cm, acrylic on canvas, 1967-68



[도판8] Jerry Ott, Laurie/Bronzino, 205.7x243.8cm, acrylic on canvas, 1974

참 고 문 헌

루이스.K.마이즐, 이영준 역 『포토 리얼리즘』, 열화당, 1990

박일호 『예술과 상징 상징형식』, 예전사, 2006

유혜경 『예술의 개요-바로크 이후』, 학연사, 2004

주은우 『시간과 현대성』, 서울; 한나래, 2003

Benjamin Walter, 반성완 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서울; 민음사,
1983

Gary Belsky, Tomas Gilovich, 노지연 역 『돈의 심리학』, 한스미디어, 2006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소비와 사회』, 문예출판사, 1992

Kiralyfalvi Bela, 김태경 역 『루카치의 미학비평』, 한밭출판사, 1984

Rene Huyghe, 김화영 역 『예술과 영혼』, 서울; 열화당, 1987

ABSTRACT

The desire of possession through plastic - centered on the author's works using borrowing art works -

Yoon, Hyun-J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background, contents and ways of expression of my works, especially ones displayed in a private exhibition under the theme of "the Desire of Possession through Plastic" from 2007 to 2010.

Art comes out of experiences in the reality and reflects the spirit of the times. Arnold Houser said, "The goal and contents of art are dealing with current issues such as the meaning of life, human conditions and current values." As he said, reflecting human surroundings and daily experiences in art is very important. In this context, I thought that art and life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wanted to reflect our society and lives of people in my works. Especially I was interested in human desire of possession in the modern society and studied people's desire of possession expressed through their habits.

Compared to the past, the material affluence created by the modern society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generalizing it. However

it didn't directly lead to the mental affluence. The modern society has been fraught with confusion in values, sense of isolation and sense of insecurity because of unbalanced development of material civilization and mental culture.

In this society, humans start to have habits to continuously check and protect themselves to overcome their sense of insecurity about their existence. In my opinion, these habits can not apply to all of the people living in this society, but some of them have the habits such as obsession with their possessions as I experienced,

I saw the aspects of modern people revealing their various desires and ideas in dealing with social issues. And I found out the human desire of immortality reflected in their possessions. So I expressed it through an image of plastic with objects expressing the desire. The wrapping of plastic in my works means that people try find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after overcoming a sense of isolation and insecurity.

The daily objects wrapped in plastic mean important things and people. These objects are expressed hyperrealistically. The hyperrealistic way of expression shows the transparency of plastic while revealing the contents wrapped in the plastic. The most important part of my works is that I wanted to indirectly express people surrounded by invisible walls to protect themselves.

In the 1st chapter, I want to reconsider the modern people's behavior trying to find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between their material desire and mental valu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my works by reflecting the human nature of narcissism expressed as the desire of possession into arts. In the 2nd chapter, I want

to study the plastic image as a medium of reflecting our possessive desire in the modern society and find out the meaning of artistic reproduction of things.

Futhermor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hyperrealism used in my works and find out the impact that hyperrealistic expressions had on photographs.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analyze my works created in abovementioned ways. Through this thesis, I want to rearrange the theories, find problems of my works and solutions an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make my works better.